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과 장 윤종석 사무관 윤종오	042-481-8621 042-481-84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8월 28일(수)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지자체와 지식재산정책소통을 강화하다!

– 제11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앙-지방정부 간에 정책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8월 29일(목) 오후 2시 휘닉스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제11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지식재산 비전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을 위해 '13년부터 개최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이번으로 11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지식재산 정책협의회에서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17개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장 등 지역지식재산 전문가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지역의 지식재산 사업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역의 지식재산 발전 방향,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등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우수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중소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특강을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IP기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긴밀한 정책소통의 場을 마련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기업의 성장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지자체 및 지역지식센터가 함께 노력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윤종오사무관(☎042-481-8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